

4. <보기>는 발음이 비슷하여 일상생활에서 혼동하기 쉬운 말들을 조사한 것이다. 이를 참조하여 잘못 사용되고 있는 어휘를 고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바치다<sup>1</sup> :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거나 쓰다.  
바치다<sup>2</sup> : 주접스러울 정도로 좋아하여 찾다.  
받히다 : ‘받다’의 피동사 (\*받다 : 머리카락 따위로 세차게 부딪치다.)  
받치다<sup>1</sup> : 심리적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다.  
받치다<sup>2</sup> : 어떤 물건의 밑이나 안에 다른 물체를 대다.

- ① 그는 설움에 받혀 울음을 터뜨렸다.(→받쳐)
- ② 그는 길을 건너다가 차에 받쳐 크게 다쳤다.(→받혀)
- ③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책에 책받침을 받치고 쓴다.(→받히고)
- ④ 이분을 위해서라면 몸과 마음을 받쳐야 된다는 생각뿐이었다.(→바쳐야)
- ⑤ 매일 그렇게 술을 받히더니 결국 간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했다.(→바치더니)

[ 5~8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김진희와 이혈룡은 출세하면 서로 돕기로 맹세한다. 양가 아버지가 모두 죽은 후 김진희는 과거에 급제하여 평양 감사가 되나, 이혈룡은 매우 궁핍한 처지가 된다. 이혈룡은 김진희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오히려 김진희는 이혈룡을 죽이려고 한다. 이혈룡은 기생 옥단춘에 의해 구출되고, 두 사람은 가연을 맺는다. 이후 과거에 급제한 이혈룡은 암행어사가 되나 걸인 행색으로 옥단춘을 찾아간다. 하지만 옥단춘은 이혈룡을 따뜻하게 맞아준다. 김진희가 연광정에서 벌인 잔치에 옥단춘이 불려나간다.

역졸들과 약속한 시각이 다가오자 이혈룡은 그 남루한 행색으로 성큼성큼 연광정 대상(臺上)으로 올라가니, 이때 당황한 나졸들이 와르르 달려들어 혈룡을 잡아서 층계 밑에 꿰려 놓으니, 김 감사가 대상에서 호통을 치니라.

“너 이놈 이혈룡이로구나. 네가 저번에 죽지 않고 또 살아서 왔느냐? 이번에는 어디 견디어 보라!”  
“나도 전번에 너를 친구라고 신세를 지려고 하였으나, 나도 양반의 자식이라. 이놈 진희야, 들어보라. 머나먼 길에 너를 찾아 왔다가 영문에서 통기도 못하고 근근이 지내다가, 이 연광정에서 네가 놓고 있는 것을 보고 반가워하였으나, 너는 나를 미친놈이라고 대동강의 사공을 불러서 배에 태워 물 속에 던져서 죽이지 않았느냐. 내 물귀신 될 원혼이 오늘 또다시 네가 연광정에서 호유(豪遊)\*하기에 다시 보려고 왔다.”

<중략>

김 감사가 사공들에게 호령하여,  
“이혈룡과 옥단춘이 두 연놈을 한 배에 싣고 나 보는 앞에서 대동강 깊은 물에서 던져 보리라!”  
사공들이 저희들 목숨 산 것만 다행으로 여기고 물러나자, 김 감사는 또 영을 내려서 북소리를 세 번 덩덩 울리니,

“그 연놈을 빨리 함께 죽여라!”

하니, 이때 아직 신분을 밝히지 않은 암행어사 이혈룡이 사공들에게 묶여서 배에 실려 오를 적에 탄식하고 하는 말이,

“붕우유신 쓸데없고, 결의형제 쓸데없구나. 전에는 ㉠ 너와 내가 생사를 같이 하자고 태산처럼 맺었더니,

살리기는 고사하고 죄 없이 죽이기를 일삼으니 그럴 법이 어디 있나. 오륜(五倫)을 박대하면 양화(殃禍)가 자손에까지 미치리라.”

하고, ㉠ **대동강의 맑은 물을 바라보며 한탄을 계속하니라.**

“대동강 맑은 물아, 내가 너와 무슨 원수로, 한 번 죽기도 억울한데, 두 번이나 죽이려고 이 모양을 시키느냐. 정말로 죽게 되면 가련하고 원통하다.”

이때 옥단춘이 이혈룡의 손을 부여잡고 만경창과 바라보며 기절할 듯이,  
“원통하고 가련하다. 무죄한 우리 목숨 천명을 못 다 살고 어복중(魚腹中)의 원혼 되니, 청천은 감동하사 무죄한 이 인생을 제발 살려 주소서.”

하고 하늘에 호소할 때, 물에 던지기를 재촉하는 북소리가 한 번 울리니, 옥단춘은 더욱 기가 막히더라.

[A] “애고 애고 이일을 어찌할까? 임아 임아 낭군님아, 어찌 하면 산단 말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죄 없으면 사느니라. 울지 말고 정신차려라.”

이때 북소리가 두 번 울리매, 춘이 자지러지게 놀라면서,

“임아 임아 서방님아, 이제는 꼭 죽었지 못살겠소. 살려주소. 살려주소. 무죄한 이 소첩을 제발 살려주소. 신명께 맹세하여 아무 죄도 없습니다.”

이때 세 번째 북소리가 들렸으니, 사공들은 당황히 재촉하니라.

“어서 물에 들어가소. 일사라도 지체하면 우리 목숨 죽을 테니 어서 물로 들어가소.”

하고 성화같이 재촉하니 옥단춘이 넋을 잃고,

“여보 사공님들 들어보소. 당신들도 사람이면 무죄한 이 인생을 왜 그리 죽이려 하오? 나만은 자결할 테니, 우리 낭군 살려주소.”

“아무리 야속해도 감사님 명령이 엄격하니, 살릴 묘책 없소이다. 어서 바빠 조처하소.”

옥단춘은 단념하고 두 눈을 꼭 감고 치마를 걷어 올려서 머리에 쓰고 이를 갈면서 벌벌 떨고,

“에구머니 나 죽는다!”

㉡ **한 마디 지르고 풍덩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 이혈룡이 깜짝 놀라서 옥단춘의 손을 부여잡고 가로되,  
“춘아 춘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고 잡아서 옆에 앉히고, 저쪽 연광정을 흘겨보면서,

“애들, 서리 역졸들아!”

하고, 부르는 소리 천지를 진동하니, 난데없는 역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며, 우레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암행어사 출도하옵시오!”

하는 ㉢ **소리가 연광정과 대동강을 뒤엎을 듯 하니라.**

<중략>

어사또의 호령이 내리자, 좌우의 나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번개같이 곤장 태장으로 두들겨 대며 가로되,

“애고애고, 어사또님 제발 살려 주십시오, 제가 죽을죄를 진 것은 저도 모를 귀신이 시켜서 그랬사오니, 죽고 사는 것은 어사또 처분이오니, 죽을죄 지은 놈이 무슨 말씀하오리까. 처분만 바라오며 잔명을 비웁니다.”

“네 이놈, 나쁜 아니라 죄 없는 옥단춘까지 나와 함께 죽이려 한 것은 무슨 까닭이냐? 네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살려 둘 수 없다.”

어사또는 전에 자기를 배에 싣고 물에 넣으러 가던 사공들을 불러 놓고,

“너희들 이 놈을 배에 싣고 대동강 깊은 물에 던져 버려라.”

사공들이 어사또의 영을 듣고 김진회를 끌어다 배에 싣고 만경창과 물위로 떠나기 시작하니라. 이때 어사또가 어진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서,

“저 놈의 죄는 만 번 죽여도 부족하지만, 나로서 옛정을 생각하니 차마 죽일 수가 없구나.”

하고 나졸을 불러서 분부하니라.

“너희들 급히 배에 가서 그 양반을 물 속에 한참 넣었다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도루 건져서 배에 싣고 오너라.”

“네잇”



29. 다음은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활동** 스타이컨의 작품을 감상하고 글을 써 보자.

예전에 나는, 사진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사진이 예술 작품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을 보고, ㉠ 사진도 예술 작품으로서 작가의 생각을 표현하는 창작 활동이라는 스타이컨의 생각에 동감하게 되었다. 특히 ㉡ 회화적 표현을 사진에서 실현시키려 했던 스타이컨의 노력은 그 예술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 스타이컨이 빅토르 위고와 같은 위대한 문학가를 창작의 영감을 주는 존재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 스타이컨이 로댕의 조각 예술이 문학에 종속되는 것으로 표현할 것까지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 기술적 도구로 여겨졌던 사진을 예술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한 스타이컨의 창작열은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0.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 소설가는 개성이 살아 있는 문체로 유명하다.
- ② 아궁이에 불씨가 살아 있으니 장작을 더 넣어라.
- ③ 어제까지도 살아 있던 손목시계가 그만 멈춰 버렸다.
- ④ 흰긴수염고래는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 중 가장 크다.
- ⑤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혈룡이 어이가 없어서,  
 “오냐, 내가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다가 통지를 할 수 없어 한 달이나 지나서 노자도 떨어지고 기갈을 견디지 못하여 문전걸식하고 다니다가 오늘에야 이 자리에서 너를 보니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어찌 이같이 괘시한단 말이나? ㉠ 오랜 친구도 쓸데없고 결의형제도 쓸데없구나. 내가 네 처지라면 이같이는 괘시하지 않을 거다. 다만 돈백이라도 준다면 모친과 처자를 먹여 살리겠다.”  
 하면서 대성통곡하였다. 이혈룡은 다시 울먹이는 말로,  
 “이 몸쓸 김진희야, 내가 지금 푼전의 노자가 없으니 멀고 먼 서울 길을 어찌 돌아가랴.”  
 하니, 김 감사는 노발대발,  
 “이 미친놈 봤나.”  
 호통을 치면서 사공을 불러 엄명하였다.  
 “이놈을 배에 싣고 가서 강물 한가운데 던져라.”  
 이에 사공들이 영을 받고 물러 나와 이혈룡을 묶어서 배에 실을 때에 연회장에 있던 옥단춘이 넋지지 보니, 비록 의복은 남루하나 얼굴이 비범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감사에게 거짓말하여 고하기를,  
 “소녀 지금 오한이 일어나며 온몸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니 감사가,  
 “그러면 물러가서 치료하라.”  
 하였다. 옥단춘이 물러 나와서 사공을 급히 불렀다.  
 “저기 가는 저 사공들, 잠깐 기다리시오.”  
 하니 사공들이 머무르거늘 옥단춘이 하는 말이,  
 “내 이 양반의 몸값을 후하게 줄 것이니 이 양반을 죽이지 말고 죽인 듯이 모래를 덮어서 숨겨 두고 오시오.”  
 하였다.  
 옥단춘의 부탁을 받은 사공들이,  
 ㉡ “아무리 사또 영이 지중하지만 어찌 우리 손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는가.”  
 하고 사공들이 이혈룡을 배에 싣고 만경창과 깊은 물에 동기동실 떠나갔다. 혈룡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속절없이 죽는 줄로만 알고 하늘을 우러러 방성통곡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혈룡은 옥단춘의 기지로 목숨을 구한 후 그녀의 집에 머물게 된다. 이후 이혈룡은 과거 시험을 치르라는 옥단춘의 권유로 서울로 돌아와 가족을 만나고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한다.

그러자 모친과 부인은 그 사실을 듣고 혈룡의 죽을 고생을 생각하고 서로 슬픈 눈물을 흘렸다. 동시에 옥단춘이 혈룡을 구제한 전후 사실을 듣고, 그 은혜를 서로 치사하여 마지않았다.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은 그동안의 회포를 서로 다 이야기하여 풀고 다시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 모친도 죽었던 자식 다시 본 듯, 부인도 잃었던 낭군 다시 본 듯 잠시도 서로 떠날 마음이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이때에 과거 날이 되었으므로 혈룡이 모친의 슬하를 떠나서

대궐 안 과거장에 들어가니 팔도에서 글 잘한다는 선비들이 구름같이 모여 있었다.

이윽고 글제를 살펴보니 ㉠ 천하태평춘(天下泰平春)이라 걸려 있었다. ㉡ 글을 지을 생각을 가다듬은 후에 용벼루에 먹을 갈아 조맹부의 필체로 단숨에 일필휘지하여 바쳤는데, 전하께서 보시고는 글자마다 비점(批點)이요 글귀마다 관주(貫珠)를 치는 것이었다.

전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신묘하다. 이 글씨와 글 지은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하시고, 알성시(謁聖試) ㉢ 장원급제로 한림학사를 제수하시고, 곧 어전입시(御前入侍)하라는 분부를 내리셨다. 이한림이 입시하여 천은을 사례하자 전하께서 칭찬하시기를,

“충신의 자식은 충신이요, 소인의 자식은 소인이다. 용모를 살펴보니 용안호두(龍顏虎頭)요, 목목지인(穆穆之人)이로다.”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한림은 어전에 엎드려,

㉣ “소신과 같이 무재무능한 자를 이처럼 충신지자충신(忠臣之子忠臣)이라 하시오니 황공무지하오며, 또한 한림을 제수 하시니 더욱 황공하옵니다.”

하고, 수없이 치사하고 물러 나와 집에 큰 잔치를 베풀고 향당과 친지를 청하여 경사를 축하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

‘평양 감사 김진희의 불의무도한 소행을 나만 당하였으랴. 무고한 백성들은 무슨 죄로 한 사람의 ㉤ 학정으로 평양 일도에서 어육(魚肉)이 된다는 말인가. 곰곰 생각하니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마땅히 성상께 여쭙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고, 전후 사실을 일일이 밀록(密錄)하여 전하께 바쳤다. 전하께서는 그 ㉥ 밀록을 받아 보시고 수없이 탄식한 뒤에

㉦ 봉서(封書) 삼장을 내리셨다. 또 친히 하교하시기를,  
“첫 봉서는 새문 밖에 가서 뜯어보고, 둘째 봉서는 평양에 가서 뜯어보고, 셋째 봉서는 그 후에 뜯어보라.”

하시고, 조심하여 다녀오라 하셨다. 이한림이 사은숙배하고 바로 나와서 모친과 부인에게 하직하였다. 새문 밖에 나가서 첫째 봉서를 뜯어보니, ‘평안도 암행어사 이혈룡’이라는 사령장과 마패가 들어 있었다.

- 작자 미상, 「옥단춘전」 -

31. 윗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반복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내고, 역지사지를 가정하여 상대방을 질책하고 있다.
- ② ㉡: 옥단춘의 회유로 ‘사또 영’을 따르지 않기로 한 사공들의 생각이 설의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③ ㉢: 이혈룡과 재회한 기쁨을 모친과 부인 각자의 입장에 어울리는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 ④ ㉣: 이혈룡의 글 짓는 과정을 행동의 순차적 나열로 보여 주고, 타인의 평가를 통해 이혈룡의 재능이 확인되고 있다.
- ⑤ ㉤: 이혈룡은 검양의 어조를 통해 상대방이 내린 지위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32. 윗글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혈룡은 ㉠라는 과제에 탁월한 답안을 제출하여 임금으로부터 ㉡에 합당한 인재로 인정받았다.
- ② ㉢는 이혈룡이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뜻하고, 임금에게 ㉣를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③ ㉤는 이혈룡이 평양에서 겪었던 일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며 ㉠가 구현되는 것을 방해한다.
- ④ ㉥는 ㉢를 계기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가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 ⑤ ㉦는 임금이 이혈룡에게 ㉢를 바로잡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3.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옥단춘전」에서 옥단춘은 인물의 비범함을 알아보는 지인지감(知人之鑑)의 소유자이자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에 빠진 인물을 구해 내는 적극적인 조력자로 그려진다. 그녀의 자신의 조력을 통해 대상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고, 애정의 대상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인물이다.

- ① 옥단춘이 오한을 핑계로 김 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연회장을 빠져나온 것에서 그녀의 기지를 엿볼 수 있군.
- ② 옥단춘이 이혈룡을 구해 줄 수 있는 인물로 김 감사를 선택한 것에서 여성으로서의 주체적 판단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군.
- ③ 옥단춘이 김 감사에게 팔시받던 남루한 행색의 이혈룡이 비범한 인물임을 발견한 데서 그녀의 지인지감을 엿볼 수 있군.
- ④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이혈룡을 구해 준 옥단춘의 은혜에 감사한 것에서 조력자인 옥단춘의 역할을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⑤ 옥단춘이 사공들에게 이혈룡의 몸값을 후하게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을 알려 준 것에서 그녀의 적극적인 조력 의지를 엿볼 수 있군.